

##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조 은 성\*\*

1. 머리말
2.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의 변화
  - 1)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
  - 2) 기술 개념의 변화
  - 3)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
3. 민간기록에 대한 기술표준 적용의 재검토
  - 1) 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 사례
  - 2) 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 사례
  - 3) 분석종합
4.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 제안
  - 1)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우애의 아카이브
  - 2) 한국인권기록 기술 제안
5. 맺음말

\* 본 논문은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2013년 2월)을 수정·보완한 것임.

\*\* (사)김영삼민주센터 연구원(joes@kyscd.org).

▪투고일 : 2013년 6월 12일 ▪최초심사일 : 2013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7월 25일.

## [국문초록]

북미 기록학계는 1990년대 전자기록, 2000년대 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문제를 다루었고 최근에 들어 미시적이고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연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정보화와 기술(technology)에 영향을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커뮤니티 아카이브, 일상 아카이브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록문화나 역사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한다. 즉 일상, 마을,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왕의 기록학 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된 인식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기록화하기 위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방법론은 제한적이다. 특히 기술(description)은 공공영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표준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기술표준을 통해서는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태이다. 따라서 각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과 지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를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방법이 필요하다. 즉, 기왕의 기술방법이 아닌 탈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기술표준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우애의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인권기록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패러다임 전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 인권기록, 공동체 아카이브 기술**

## 1. 머리말

최근 전자기록 환경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에 따라 복미 기록학계는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패러다임이란 개념은 토마스 쿤(T.S Kuhn, 1922-1996)이 논의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패러다임은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이념, 인식 등으로 이뤄지는 총체로서, 공동체는 패러다임에 따른 시각을 통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주장했다. 기록학계는 1990년대 전자기록, 2000년대 초 전자기록의 진본성 문제, 그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거대담론을 지양하고 미시적이고 문화적 담론을 인식한 연구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은 기록학의 개념변화와 기록화의 대상범주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차원에서 기록, 아키비스트, 아카이브의 개념 및 역할이 변화하였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일상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를 비롯한 마을 아카이브,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방법론으로서 기술 역시 그 역할과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분명 이러한 기록학 연구의 경향성은 기록관리의 환경 즉 기술(technology)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기록문화나 역사가 갖는 개별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 즉, 기록학 연구의 인식론적 장이 변화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록학 연구의 다원화, 다양성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 마을,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기왕의 기록학 담

론 즉 거대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다. 기왕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공공영역의 ‘결핍된’ 영역으로서 민간영역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을 기록화하려고 했다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미시적 문화적 담론 하에서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본격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즉,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결핍된 영역으로서의 보충적 역할이 아닌, 그것이 가지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자료를 기록화하려는 노력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기록화하는 방법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었다. 나아가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은 ISAD(G)를 비롯한 기술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기술방법들은 공공영역의 기록화 방법으로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개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러한 ‘표준적’ 방법론을 이용하면서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삭제’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은 북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태이다.

기술표준은 기왕의 거대담론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기록 즉 커뮤니티의 기록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공공영역의 기술은 방대한 양과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표준이 유효하다. 그러나 커뮤니티와 같은 미시적 영역은 기억과 경험을 통한 정체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기록들을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과 커뮤니티 목적 및 지향의 관점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탈표준(post-standard)’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탈(post)의 의미는 리오타르가 주장했듯이 표준에 대한 반(反, anti)뿐만 아니라, 기술표준을 초월(超越, trans)하며, 나아가 표준을 포월(包越)하는 ‘무엇’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연구대상이 방대해지고 다양한 영역을 기록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영역을 기록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기왕의 연구방법들을 답습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개념 변화와 발맞추어 실제 방법론 차원에서도 역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특히 여기서는 미시적 영역 즉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2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과 더불어 기록학의 개념을 패러다임 전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아가 패러다임 이후 이론적 측면과 연동하여 기술개념에 대해 재정리할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의 개념 및 역할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인식론적 위치를 설정하여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술의 역할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기술표준 적용에 대한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기술표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 기술표준을 이용한 커뮤니티 기록에 대해 얼마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그 분석의 초점은 2장에서 논의한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인식론적 위치이다.

4장에서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에서 진행된 우애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을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애의 아카이브에 관한 전반적인내용을 언급하고, 앞서 3장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분석했던 논의를 가져와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을 평가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여 한국인권 기록에 대한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의 변화

### 1)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

최근 기록학 연구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록학계에서는 얼마 전까지 전자기록과 문화자원아카이빙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근래에 이르러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언어가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주된 연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커뮤니티와 일상아카이브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연구도 속속 산출되고 있다. 현상적으로 전자환경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게 한 중요한 요소였지만 그러한 전자적 현상뿐만 아니라 철학적 차원에서 포스트모더니즘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패러다임 전환의 철학적 배경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인식론적 전제가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사유체계<sup>1)</sup>를 비판하고, '다양성'과 '차

- 
- 1) 모더니즘은 중세적 세계관과 이념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이성에 따른 합리성'을 기반 한 진보의 관점으로 사회 및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철학적 차원과 지식형태의 변화 차원, 그리고 현상적 차원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철학적 차원에서 모더니즘은 중세시대의 인간과 인간의 이성, 절대자이자 자기완결적인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이라는 논의를 벗어나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개별적이며 주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것의 근거는 코기토(Cogito, ergo sum)이다. 둘째 지식형태의 변화차원에서 보면, 코기토로부터 인간이 개별성과 주체성을 획득하면서 보편적 이성에 따른 합리성을 확립하였고 나아가 학문체계에도 변화하게 되었다. 합리성을 대표하는 언어는 수학적 언어였으며, 모더니즘의 진리에 대한 이해는 모든 것을 '분류'하고 검증하며 실증하는 체계로 완성된다. 따라서 진리의 검증은 언제나 실증적인 지식으로부터 찾는다. 셋째 현상적 차원에서는, 앞서 말한 인간이성을 기반으로 한 합리주의에 따라 사회와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개념은 인간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직선적인(혹은 단선적인) 시간관과 결합된 것이다.

이' 그리고 '상대상'을 강조한다. 다양성은 보편적 인간 대신 개체로 존재하는 인간 각자에게 상응하는 존재의 원리와 자율성을 허용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과 전체에 얽매이지 않는 차이에 의미를 둠으로써 개인의 개체성, 부분 체계들의 공간을 보장한다.<sup>2)</sup> 쉽게 이야기하자면,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도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광기/이성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광기를 포함한 여러 '이성'들의 존재를 인정한다. 지금,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인간적 혹은 인간성이라고 보는 것들은 모더니즘에 의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며, '인간적인 것'과 '인간성'을 보장하게 하는 언어(예를 들어 이성과 광기, 도덕과 폐륜 등에서 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에 부합하지 않는 것(실체와 인식 중 어느 것이든지)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배제한다. 반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이란 앞서 말한 그 배제된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인식론적 위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푸코는 모더니즘을 '인간중심주의'라고 설정하면서 이를 해체하는 것을 자신의 학문적 목표로 삼았다. 그의 구조주의적 사고<sup>3)</sup>를 빌리면, 언어와 문화에 내재한 '보편적'이고, '자연적'인 구조 또는 본질이란 이념

2) 신승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성찰』, 살림, 2003, 60쪽.

3) 푸코는 그의 철학적 작업들을 「계몽이란 무엇인가」(1984)에서 정리한다. 푸코는 자신의 작업을 내용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1960년대까지 '지식의 고고학'(『광기의 역사』~『말과 사물』/『지식의 고고학』), 1970년대 중반까지 '권력의 계보학'(『담론의 질서』/『감시와 처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4년까지 '윤리의 계보학'(『성의 역사』1 지식의 의지』~『성의 역사』3 자기배려』)라는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푸코의 사유가 『말과 사물』까지 '광기'의 구조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 이후의 사유가 포스트구조주의로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연구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의 사유가 정확히 포스트구조주의 혹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포함될 수 없으나, 그의 사유는 모더니즘이라는 거대담론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데에 유효하다.

적 허구(fiction)<sup>4)</sup>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인간 역시 지식과 권력의 규율장치들, 넓게는 시대적 담론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글을 끝맺는다.

우리의 고고학이 최근에 잘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은 하나의 창안물이다. 어쩌면 인간은 종말이 가까이 와 있는 존재일 것이다. (중략) 만약 그 배치가 출현했듯이 사라지기에 이른다면, 18세기의 전환점에서 고전주의적 사유의 밑바탕이 그랬듯이 만약 우리가 기껏해야 가능하다고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형태가 무엇일지도,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대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 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sup>5)</sup>

이 말인즉슨 인간도 역사성을 띤 담론에 따른 ‘창안물’이며, 푸코의 용어를 따르자면 고전주의 시대에서 근대로의 ‘에피스테메(épistémè)’ 전환기에 인간에 관한 담론이 재배치되어 기왕의 것은 지워졌듯이, 근대의 에피스테메가 다른 무엇으로 전환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간적인 것’ 또는 ‘인간성’은 삭제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유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특히 근대 이후 탄생한 학문체계 전반에 걸쳐 도전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 내에서 ‘진리’와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문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석의 단일성, 사실의 실체

---

4) 픽션(fiction)을 허구로 해석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픽션은 언제든지 대상이 재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역, 『메타역사 :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 참조.

5) 미셸 푸코, 이규현 역, 『말과 사물』, 민음사, 2012, 526쪽.



성, 연구의 객관성 등이야말로 모더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허구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나아가 해석의 무한성, 사실의 허구성, 연구의 주관성 등을 부각시켰다.<sup>6)</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 속에 기록학도 역시 피해갈 수 없었으며, 그것은 기록의 개념, 아키비스트의 역할,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다시 정립하도록 요구했다.

모더니즘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은 기록학계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2010년에 이르러 북미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을 그 연구영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초의 전자기록 혹은 전자환경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이다. 2010년을 지나며, 기록관리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이론적 논의는 기록관리의 거대 담론을 거부하고 미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포스트모던적 논의는 2010년 기록과 기록관리를 이해하는 주요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기록 생산과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방법론적 편향성과 주관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떻게 기존의 원칙과 가치들이 체계적으로 대중의 기록을 배제시켰는지,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기록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쏟아졌다.<sup>7)</sup> 이 추세를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북미의 경향만은 아닌데, 예를 들어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 평가체제의 방향성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및 기억담론과 평가를 연결지어 “기록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형성시킨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기조발표를 한 노명환은 “봄으로부터 시작되

6) 김현식,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상적 위기와 현대 역사학」, 『역사비평』 42권 봄호, 1998, 231쪽

7) 윤은하, 「북미 기록학의 동향과 전망—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2011, 77-94쪽.

는 일련의 변화 사항들, 즉 사회적 동물로서 아키비스트의 주관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반 해서 시대의 가치를 담는 도큐멘테이션 플랜을 추진하는 이러한 작업들은 어느 정도 포스트모던 사조와 관계있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한편 같은 해 명지대학교의 인간과 기록연구단에서 『일상 아카이브의 방법론』, 『아카이브의 단층과 일상의 심층』이란 주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일상아카이브에 대해 여러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방금 언급한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최근 기록학계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을 전유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연구의 경향성을 세분화하면, 기록학 전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타자(Other, 他子)”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현상적 차원에서 기록화의 대상범주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기록학 전반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차원이다. 특히 기록과 아카이브,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우선 기록에 대한 개념은 크게 사회적·문화적 구성물, 복합적 의미로서 이해되었다. 먼저, 기록은 더 이상 행위의 반영물이라기 보다 “사회적·문화적 구성물”이다. Geoffrey Yeo가 “기존의 정의가 기록의 본질에 대한 검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기록관리 실무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났다”<sup>9)</sup>고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기록학은 기록학 원칙에 경험적인 태도를 가졌고 이를 기술적인 과학으로 만들기 위해 실증 철학 역사방법론의 필수적인 것을 적용했는데 이는 개념의 정교화보다는 사실의 추적을 목표로 한 것이었

8) 노명환,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커뮤니티의 정체성 구성과 아키비스트의 역할」,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9-10쪽.

9) 윤은하, 앞의 글, 85쪽 재인용.

다.<sup>10)</sup>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방법론은 엄정한 사료비판과 역사가의 주관성을 배제하여 “과거사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에 기록은 과거에 대한 증거를 담보하고 있어야 했다.<sup>11)</sup>

이러한 기록의 개념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지배자와 엘리트층을 위한 문서가 기록으로 규정되었다고 말하면서, 누가 기록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결정된 가치에 따라 기록을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 그 가치는 고정불변한가? 그렇다면 가치가 없는 것은 그대로 잊혀지거나 사라져도 되는 기록인가? 등 남아 있는 기록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북미의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들은 기록이 상징이며 매개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이자 기표(signifier)이고, 더 이상 단순한 활동과 사실이 담기는 빈 그릇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사실과 기록을 과학적으로 공정하고 순수한 행동의 부산물로 부활시키는 것이 무결하다는 것에 기초한 실증주의 방법론에 대한 불신이다.<sup>12)</sup> 기록이 행위를

---

10)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Vol.1, No.1, 2001, p.12; 역사가 조지 이거스에 의하면 실증주의 역사방법론을 포함해 3가지 근대 역사학의 인식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그 인식론적 전제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가가 발견하고 서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랑케 이후의 과학적 역사학의 구조를 결정지었다. 그것은 실재성(reality)과 의도성(intentionality), 시간적 계기성(time sequence)으로 불린다. 간략히 말해, 실재성이란 과거에 실재가 존재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의도성은 그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며, 역사가는 이를 이해하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시간적 계기성(일차원적 시간관)은 일차원적이며 통시적인 시간을 전제하여 나중에 일어난 사건과 그 이전 사건간의 일관성을 통해 일종의 인과관계를 만들어 낼 전제를 마련한 것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지 이거스, 임상우·김기봉 옮김, 『20세기 사학사』, 푸른역사, 1999 참조.

11) 실증주의역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글을 참조. 노명환, 「19세기 독일의 역사주의 실증사학과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 : 랑케, 지벨 그리고 레만과 출처주의/원질서 원칙」, 『기록학연구』 제14호, 2006, 359-388쪽.

12)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p.10.

그대로 반영한 거울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기록은 생산 및 매개, 구성되는 굴절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에 따라 기록학에서는 업무과정맥락보다 사회적·문화적 맥락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인지하면서 똑같은 기록이 어떤 맥락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의 변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록은 단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 보다 “복합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sup>13)</sup> 더 이상 기록은 봉과 시리즈라는 안전하고 고정되고 정적인 업무구조 따른 계층구조의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 수시로 변화하는 조직 내에서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기록은 기록 생산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목적 설정에 따라 형성되고, 나타나고, 재현되고, 상징화되고, 구성되어진다. 변화하는 조직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텍스트도 이에 대해 결백하지 않다.<sup>14)</sup>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자들은 기록의 복합적 의미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의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은 이제 세계를 놓친 한낱 흔적으로서, 그리고 사실과 과거의 실재를 왜곡하고 있는 일종의 뒤틀린 거울로서 인지된다. 그리고 기록은 그것을 작성한 저자가 가진 담론의 목적을 반영하며 따라서 기록은 문화적 기표이자 간접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성물이 된다.<sup>15)</sup>

---

13) 이승억(이승억, 「전자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개념에 관한 재검토」, 『기록학연구』 제6호, 2002, 41-72쪽)은 전자환경에서 기록의 의미가 단일 의미에서 복합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전자환경만큼이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통해 기왕의 기록 및 기록학에 대한 재검토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른 기록학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Terry Cook,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p.5-17 참조.

14)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 postmodernism and the practice of archives” *Archivaria* Vol.51, No.1, 2001, p.27.

두 번째로 개념의 재정립 차원에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도 변화하였다.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는 증거의 보관소와 보관자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생성자’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sup>16)</sup> 전통적인 관점에서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는 증거와 기억의 보관자로서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다. 즉, 자연적 축적물로서 기록을 미래세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록의 정의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로서 인지하기 시작하고, 이와 연동하여 기록의 의미를 투여하는 과정 속에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기억되지 않고 모든 것이 기록될 수 없으므로 아카이브(아키비스트)를 통해 선택적으로 기억되고 선택적으로 망각된다. 또한 아키비스트는 어떤 기록이 남겨지느냐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자가 아니며,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구성된 다수의 사회적·기술적·문화적·정치적 요소 가운데 소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다른 한편으로 개념의 재정립 차원뿐만 아니라 현상적 차원에서 기록화의 대상범주를 확대시켜 나아갔다.<sup>18)</sup> 이것은 대항기억으로서 사회

15) Terry Cook, Ibid, p.27.

16) Tom Nesmith, “Seeing archives : postmodernism and the changing intellectual place of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65, No.1, 2002, pp.25-26: 탐 네스미스에 따르면, 아카이브에서 지식이용에 대한 주요한 매개자 혹은 구조자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권리를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은 지식, 문화, 사회의 형성과정에서 아카이브가 중요한 새로운 지적 공간(place)라고 제안한다. 이 새로운 지적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가 사회를 반영한 단순히 방대한 양의 기록을 보관해한다는 기왕의 생각과 반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17) 조민지,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제27호, 2011, 97쪽;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통해 기억을 선택적으로 망각시키고 기억시킨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상민, 「민족주의와 국립기록보존소에 관한 불쾌한 진실」, 『기록학연구』 제4호, 2001, 197-212쪽 참조.

18) 기록화의 대상범주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언급해야

속 소수자들의 기록을 기록화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Terry Cook은 아래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박물관, 기념관, 주류 미디어 그리고 아카이브와 비슷한 것으로 채워진 전통적인 것들 보다, 수백 개의 방송채널, 수천 개의 틈새시장,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 등 미디어와 상업의 세계화, 이것들의 전 세계적인 전산네트워크 통신, 나아가 그 결과로서 생기는 정보의 폭발과 분열은 거대담론에 대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백인남성의 목소리는 가장 먼저 소수민족과 다문화 목소리에 의해 도전 받았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이후 계속되어진 페미니스트의 목소리, 나아가 생태학자들, 게이

---

할 것은 아카이빙의 다양화가 소재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더 많은 소재를 기록화함으로써 총체적인 '무엇'에 다가가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에 마을과 커뮤니티 그리고 일상을 기록화하는 것은 거대담론의 불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 모더니즘의 권력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중 김익한(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51-172쪽)과 이영남(이영남, 「마을아르페 시론」, 『기록학연구』 제18호, 2008, 221-254쪽)의 두 개의 글에서 방금 언급했던 논의들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김익한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엘리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진행해야하고, 그 현장을 기록화하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을 제언했다. 이영남은 작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마을 아르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마을 아르페'가 '이질적 폴무간'이자 '여성적 폴무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가 밝힌 이러한 지향점이란 미시세계가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있으며 복잡한 다양성으로 쟁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 속에서 타자를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영남의 논의는 앞서 말한 김익한의 논의와 대조적이다. 이영남의 표현을 빌리면, 김익한의 논의는 삶의 기록화와 마을 아카이빙을 주제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남성적이라고 비유한 것은 요컨대 마을 아카이브를 논의하면서 그 방법은 공공영역을 기록화 했던 방법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 레즈비언, 제3세계의 지식인들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그 결과 사회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말했던 타자(Other)에 대해 알게 되었다.

……(중략)……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여러 세대, 수 세기 동안 정상적이고 자연적이며 합리적으로 입증되어 사회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했던 것들을 찾는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남성중심사회, 자본주의, 서양 문학의 고전, 아카이브의 작업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찾고 그 현상들에게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선언한다.<sup>19)</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성에 기초한 타자에 대한 인식은 현상적으로 기록학 범주를 확대시켜왔다. 이는 커뮤니티·마을·일상 아카이브가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토양을 마련해주었다. 물론 사회 속에서 배제되었던 계급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화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지향한 사회사가 진행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사회사로부터 발발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은 전체 사회상을 그려내기 위한 결락된 부분으로서 그 역할을 할 뿐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사회상의 ‘총체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된 기록화였다. 한국 기록학계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거시적 아카이브에서 미시적 아카이브로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록화의 총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시적 아카이브(공공 영역)’와 ‘미시적 아카이브(민간 영역)’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영역을 모두 기록화하여 총체적인 ‘무엇’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인식론적 지각은 마치 사회사가들이 과거의 흔적들(사료들)을 모두 보유할 수 있으면 과거의 상(像)을 ‘있었던 그대로’

---

19)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p.23-24.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별반 다르지 않다.<sup>20)</sup>

결국 이러한 논의는 단순하게 기록화 소재에 대한 다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두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다양성은 보편적이고 동일한 것과 전체에 얽매이지 않는 차이에 의미를 두어 개인의 개체성, 부분 체계들의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커뮤니티, 일상 아카이브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인 ‘무엇’을 향해 부족했던 영역을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일상’과 ‘보통사람들의 기록화’가 아닌,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해 타자성을 인정해야 할 때에만 미시적 아카이브로서 일상, 커뮤니티, 마을 아카이브의 의미가 유효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영역 아카이브와 민간영역 아카이브의 이분법적 구분 혹은 반대급부가 아닌 한 사회를 구성하는 아카이브들로 인식할 때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이해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 2) 기술 개념의 변화

여기서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Archival Description)’에 대한 변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록과 이용자 간의 연결점이며, 기록학 영역과 시민영역의 가교 역할 그리고 기록의 재현에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념적 차

---

20) 여기서 언급한 역사가들의 인식론적 발상 즉, 과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마치 퍼즐조각을 하나하나 찾고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를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이미 깨우쳐준 바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 특히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영향으로 ‘언어는 실재(reality)를 반영해주는 수단이 아닌 오히려 반영상과 굴절상을 모두 전달한다.’고 했다. 이런 언어학자들의 힘을 빌려 생각해 보면 언어로 직조된 과거의 ‘기록’이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 한들 각각의 기록들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도 않으며, 과거의 ‘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원에서 전통적인 관점의 기술이 기록 재현의 “거울”로서 접근점·검색 도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패러다임 이후 기술은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아키비스트의 권력누수를 위한 공간이자 아키비스트 이외에 기록의 의미를 (재)생산하는 이용자 및 생산자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패러다임 이전의 전통적 관점에서 기술은 풍존중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풍 기반 기술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풍 기반 기술에서 출처는 단일출처이다. 기록은 단일한 기관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풍, 하나의 출처로서 묶여질 수 있다. 둘째 단일한 출처로서 풍은 곧 기록 생산기관이 된다. 기록은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주체 즉 공기록에 대해서는 기관과 조직, 사기록에 대해서는 가문과 개인 등이 풍으로서 구성된다. 셋째 따라서 기술단위의 중심 계층은 풍이 된다. 아키비스트는 하나의 풍을 중심으로 종속적으로 수직적인 계층으로서 풍-(서브풍)-(서브)시리즈-파일-아이템 등의 계층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인 아키비스트는 기록생산자가 이런 집합적 계층을 명백히 만들었다고 추정하며, 이에 따라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기록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물리적 파일과 시리즈를 보호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이러한 집합적 계층은 ‘맥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풍 기반 기술은 주요 출처를 중심으로 원질서를 설명하여 정적 객체로서 정보객체 그리고 검색도구를 생산하도록 안내하며 정적 객체를 재현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술은 아키비스트에 의해 생산되지만, 기록학적 작업 한계를 넘어 재현되고 계층마다 단위가 추가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풍은 개념적으로 정적·고정적인 것이다. 다섯째 풍 기반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술시기를 비현용 기록 단계에서 소급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른 기록에 대한 보관권(Custody)을 가진 기관에서 수행된다.

반면 패러다임 이후 기술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기술은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 기술 과정 속에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권력누수 공간이 되었다. 셋째, 기록의 의미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공간이 된다.

첫 번째로 기술은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두 개의 물질이나 공간의 일부분에 대한 경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화학에서 본래 사용되었지만 19세기말에 이르러 인터페이스는 사회, 문화, 조직적 및 기술적 시스템의 접점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다. 인터페이스의 개념은 조직이론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두 개의 기관 사이의 연결을 식별하거나 또한 기능적 조직과 외적 환경 사이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는 경계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물, 사람, 정보, 개념을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sup>21)</sup>

이렇게 보았을 때 인터페이스로서 기술은 기록학 영역과 시민영역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술이란 기록학적인 전문성을 띤 작업과 수많은 기록생산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의 내러티브가 상호 교차하는 공간이다. 패러다임 이전의 기술은 아키비스트의 작업,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록학적 개념과 원칙들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간이었다. 역으로 이용자들은 원하는 기록을 찾고 참고하기 위해서 아키비스트와 기록학의 개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패러다임 이후 기술은 인터페이스로서 기록학 영역과 시민영역이 상호작용하며 나아가 공명(共鳴)하는 공간으로서 제시된다.

두 번째로 이제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누수 공간이 된다. 그동안 기술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아키비스트를 통해 기록구조를 사실대로 재현하는 도구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기술에서 아키비

---

21) M. Duff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Vol.2, No.3-4, 2002, p.276.

스트는 이용자에게 전체 정보 중 무엇을 읽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상당히 권력적인 활동이고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록학자들은 기술작업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권력적 활동을 인정하면서부터 “기록에 남겨둔 흔적(imprint)을 왜곡시키기보다 공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sup>22)</sup>고 주장한다. 이것이 패러다임 이후 아키비스트의 권력누수 공간으로서 기술이다.<sup>23)</sup> 이제 아키비스트는 권력활동의 밖에서 설 수 있다는 순수한 상상을 버려야 한다. 아키비스트는 정치적 역할을 하며 권력관계의 역학관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기술은 아키비스트의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키비스트 자신을 문서화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는 그들의 가정, 편견, 해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sup>24)</sup>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기술할 때 기록의 실재에 대한 단면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단면의 단면 나아가 단면의 단면의 단면을 재현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록의 의미를 형성하고 배제했던 편견과 가치관을 표출하는 것은 중요하다. 결국 기술은 아키비스트의 작업과 그들의 가

---

22) Margaret Hedstrom, “Archives, memory, and interface with the past” *Archival Science* Vol.2, No.1-2, 2002, p.33.

23) Terry Cook은 포스트모더니즘에 따른 기술이 기술 간의 유동적이며, 프로세스의 투명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erry Cook, “Fashionable nonsense or professional rebirth”, p.32; 그리고 MacNeil은 재현의 완전함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최선의 방법은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를 잡아내는 행위를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민지, 앞의 글, 2011, 108쪽 재인용; 여기서 본인은 ‘권력누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권력누수는 기록학 프로세스 중 기술작업에서 아키비스트가 그들의 작성방법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아키비스트의 기술작업은 기록에 대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동시에 왜곡시킬 수도 있다. 기왕의 기술은 전문가로서 아키비스트가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면,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술은 기술작업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권력적 행위를 드러내는 공간이 된다.

24) M. Duff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p.278.

치를 공개함으로써 권력을 끈고히 다지는 공간으로부터 오히려 그들의 권력이 새어나오도록 하는 공간이 된다.

세 번째 기술은 이제 참여의 공간이 된다. 지금까지 아키비스트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기록에 어떠한 개입도 반대해왔다. 비유컨대 마치 본래의 질서와 정리가 아키비스트 이외에 사람들이 개입하면 ‘오염’된다고 생각해 왔다. 아키비스트는 더 이상 기록의 무결함을 보장하는 역할도 아니며,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유일하게 통제하는 역할도 하지 않는다. 기록의 의미를 만들어 간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수많은 맥락정보 중 하나로 인식될 뿐이다. 이제 기술은 기록에 대한 의미를 창출하도록 관여한 사람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기술에 다른 목소리를 담기 위한 하나의 현실적인 시도는 기술 작업과정 속에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용자를 초대하여 기술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 도전과 함께 기술의 발전 및 많은 국가들의 아젠다와 일치하기 때문이다.<sup>25)</sup> 기술 작업에 아키비스트 이외에 이용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소셜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비롯한 웹2.0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극곰원정대 컬렉션(The Polar Bear Expedition Digital Collection)<sup>26)</sup>, NA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웹2.0서비스<sup>27)</sup>, 그리고 시민 아키비스트 대쉬보드(Citizen Archivist Dashboard)의 Edit Articles<sup>28)</sup>, 위키피디아의 철도역 편집 사례<sup>29)</sup> 등 새로운 기술 시스템으

---

25)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ABC-CLIO: Santa Barbara, 2010, p.101.

26) <<http://quod.lib.umich.edu/p/polaread/>>, [cited 2012.7.25].

27) <<http://www.archives.gov/social-media/>>, [cited 2012.07.25].

28) <<http://www.archives.gov/citizen-archivist/>>, [cited 2012.07.25]. Our Archives 및 NARA의 위키프로젝트, Today's Document 사이트와 연결된 기술내용을 이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다.

29)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D%94%84%EB%A1%9C%EC>

로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하나의 연구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생활사 아카이브, 마을아카이브, 민속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로컬리티 기록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학계의 큰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현상으로서 커뮤니티와 마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를 위한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정책을 시행했지만 그 정책이 실패하고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마을을 경제·복지·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방법으로서 마을공동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대표적이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진척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6월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지역별 인적·공간·인문 자원을 기록화하고 국내·외 마을 공동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기록화하여 아카이브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학계와 사회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 그 필요성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계 차원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단순한 소재의 다양화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관련된 커뮤니티의 기록을 기록화하기만 하

---

%A0%9D%ED%8A%B8%EC%B2%A0%EB%8F%84), [cited 2012.07.25]. 위키디피아 철도역 편집사례에서는 이용자 간의 내용 수정 및 추가를 통해서 문서의 내용을 점점 풍성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철도노선 프로젝트 항목이 작성되고, 뒤이어 각 노선에 속한 철도역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 된다는 논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 속에 기술에 대한 논의는 찾아 볼 수 없다.

커뮤니티,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정의와 범주는 현재 다양한 학계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정의를 광의와 협의의 차원에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협의의 커뮤니티는 공간(지역, 마을)을 기반으로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그 경험과 기억을 재현하는 기록과 기록이 관리·보존되는 지적·물리적 공간이다. 광의의 커뮤니티는 공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지만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 결속된 공동체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의미에서 커뮤니티는 마을, 취락 등이 되겠지만 현재의 커뮤니티는 온라인상의 수많은 동호회들과 소수자-성적 소수자,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각종 기념단체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공간과 지역적 특성을 가지지 않지만 기억과 경험이 공유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지적·물리적 공간이 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도 커뮤니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기술표준에 대한 비판<sup>30)</sup>은 단순히 아키비스트의 중립적 역할, 재

---

30) 기술표준은 각 국가마다 전통을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표준은 기술실무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며, 전문성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적절한 시스템 발전을 통해 데이터 공유, 장거리 접속 등 기관간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런 기술표준화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 기록 학자들에게 기술표준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아키비스트는 기록구조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 위한 '거울'로서 기술을 말한다. 이에 아키비스트는 기록구조를 전달하는 중립적인 전달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해왔다. 그러나 아키비스트의 개입은 자명하다. 기록을 기술하면서 아키비스트는 지속적으로 맥락의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키비스트의 내러티브가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재현의 논의로 연결된다. 아키비스트는 어떤 기록을 강조하고, 어떤 기록을 선택해서 보여 줄지를 결정한다. '의도와 해석이 없는 재현은 없다'라는 말은 기술영역에도 유효하다.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p.96; M. Duff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기술표준의 적용 범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록화의 대상범주를 확대시키는 과정 속에서 커뮤니티·마을·일상 아카이브가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술은 여전히 ISAD(G)와 같은 기술표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차원에서 기록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표준은 유용하긴 하지만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같은 소규모 단위의 아카이브에서는 그렇지 않다.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국가단위의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보다 기록의 양이 적을뿐더러, 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보라는 목적은 기술표준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기술표준은 접근점·검색도구를 제공하고 국가차원의 공식기억을 담지하고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공식기억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목소리들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 결국 국가차원의 기록관에서는 여전히 기술표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탈’표준(post-standard)이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탈’표준은 리오타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표준의 반(反, anti), 시간적 이후(後, after) 그리고 초월(超越, trans)을 모두 의미한다.

〈그림 1〉은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동해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표준적 기술이 시공간-주체의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표준적 기술이 (생산·관리)주체가 행위를 증거하여 현재 혹은 미래의 공간 속에서 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주체가 경험을 통해 기억된 내용을 시공간 속에서 상징화되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표준은 공적영역의 아카이브에서 적용되는데 기록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 그렇지

---

meanings”, p.276.

않으면 그 행위(업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거니와 설명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반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정체성을 끈고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다. 국가 단위의 아카이브에서 기술의 주체는 언제나 기록관리자(Records Manager, Archivist)가 된다. ISAD(G)와 같은 표준 기술들이 비현용 단계에 와서 소급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기술의 주체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다. 해당 커뮤니티 기록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기술을 통해 기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연자 역할을 한다.

〈그림 1〉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



기술에 관한 주체성의 문제를 비롯해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기술(Narrative Description)을 주장하면서 이영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폴무에는 폴무기록이 있었으니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폴무 사람들에게 의해 정리기술 작업이 이루어졌다. 해당 공동체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기록을 선용(善用)했으며, 기록을 선용하면서 자신과 공동체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폴무 아카이브 워크숍을 하면서 ‘기억의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마도 이것은, 공동체 아카이브에는 ISAD(G) 같은 표준도 필요하겠지만, 표준이 예상하지 못한 기술서가, 멀리서 보면 파리처럼 보이는 기술서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이 아닐까?<sup>31)</sup>

요컨대 표준적 기술이 기록의 재현에 대한 ‘객관적인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면,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은 객관성을 지양하고 재현보다 상징 그리고 ‘주관적인 무엇’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실보다는 해석, 단일의미보다 복합의미, 단일 기술서보다 중층 기술서가 기술표준과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차이이다. 결국 기술표준이 국가단위의 아카이브에서 숙명처럼 보이는 효율성(efficiency)을 기반하고 있다면, 비유컨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은 전통적인 커뮤니티의 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처럼 협력(Solidarity)을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1)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방법론—폴무학교 10주년 컬렉션 작업을 중심으로」, 『일상 아카이브의 방법론』, 2012, 명지대학교 인간과기록연구단, 31쪽.

### 3. 민간기록에 대한 기술표준 적용의 재검토

1절과 2절에서는 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로 구분된 사례를 설립 목적, 수집 목적, 그리고 실제 기술된 형태 등에 따라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3절은 이를 기반으로 앞서서 알아보았던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해외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경우 해당 아키비스트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웹사이트 상의 검색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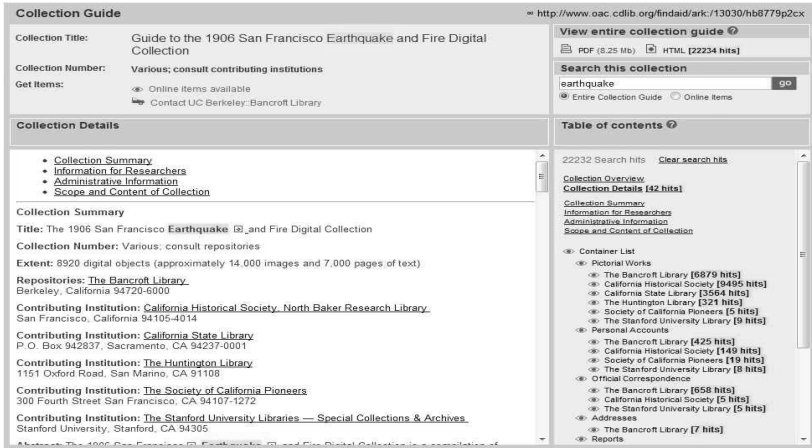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공간(지역이나 마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구성된 커뮤니티를 말한다. OAC,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활사아카이브, 부산산도북도로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삼았다. 해외에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많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국내의 연구대상은 기록학계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화 작업을 진행한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살펴볼 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nline Archives of California, OAC)이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sup>32)</sup>는 2002년 시작된 사업으로 UC Berkely가 EAD(the Encoded Archival Description) 표준을 개발하면서 2008~2009년 재설계되었다. 이 아카이브는 무료로 대중들에게 캘리포니아 전역의 도서관, 특별 컬렉

32) <<http://www.oac.cdlib.org/>>, [cited 2012.08.01].

션, 아카이브, 역사학회, 박물관 등 200개의 참여기관이 보유한 주요 컬렉션과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캠퍼스가 소장한 컬렉션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OAC의 주된 역할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특별 컬렉션 사업에 의해 관리된다.

〈그림 2〉 OAC의 기술



이 가상 아카이브는 OAC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며, 20,000 여 개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를 가지고 있다. 가상 아카이브에서 방문자들은 브라우즈(Browse), 위치정보(locate resources)를 이용할 수 있고, 220,000 여 개의 디지털화된 아이টে을 볼 수 있으며, 물리적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또한 OAC의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는 손쉽게 컬렉션을 찾게 해주며 각각의 객체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이 가이드는 다양한 맥락정보만큼이나 컬렉션 속 아이টে의 자세한 기술을 제공한다. 선별된 아이টে은 즉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디지털화되어 있다.

컬렉션 가이드는 컬렉션명과 컬렉션 분류번호 그리고 아이템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 하위에 컬렉션 개요(Collection overview)는 컬렉션에 대한 간단한 기술, 제한사항, 이용사항 항목으로 구성된다. 컬렉션 개요에서 컬렉션 세부사항 항목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림 2>을 보면, 크게 컬렉션 기술요약(Descriptive summary),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 관리정보, 범위와 내용 등으로 구분된다. 컬렉션 기술요약은 다시 제목, 분류번호, 크기, 소장장소, 참여기관, 초록, 언어, 물리적 위치 항목이 있다. 연구자들을 위한 정보는 공개접근, 저작권, 관련 출판 자료, Indexing Terms로 구분된다.

OAC의 컬렉션 가이드는 자료의 특성, 협력기관의 기술업무 특성에 따라 기록 계층이 다양하지만, 모든 가이드가 인벤토리 형식의 검색도구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OAC는 현재 MARC와 EAD 2개의 기술 포맷을 채택하고 있다. EAD의 경우 상세 검색 및 목차 제공이 가능하지만 MARC으로 기술 된 경우 불가능하다.<sup>33)</sup> 앞서 언급한 항목 중 컬렉션 개요가 MARC에 해당된다면, 컬렉션 세부사항은 EAD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생활사아카이브<sup>34)</sup>를 살펴보자 한다.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단이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민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원자료의 기록 ▲ 아카이브의 구축 ▲ 학제적 연구를 넘는 통학적 연구. 즉 민중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로

---

33)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22쪽.

34) <[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http://www.minjung20.org/new_archives/)>, [cited 2012.08.20].

만들고 이 자료의 공유를 통해서 통학적인 연구로 사라져가는 민중생활사를 복원하는 것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기존 아카이브 구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아카이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카이브가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보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이다.<sup>35)</sup>

연구단은 한국의 근현대 생활문화를 전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연구원의 구성도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문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지역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강, 철도, 항구를 낀 지역 ▲ 근현대 문화의 전형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 ▲ 근현대 문화를 대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 ▲ 근현대 생활공간의 사람들의 분포를 잘 보여주는 지역 등이 그 기준들이다.<sup>36)</sup>

생활사연구단의 기술은 더블링크어의 표준안을 따르는 한편 특정항목을 추가·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항목이 2008년도와 2012년 두 번에 걸쳐 변화하였다.

---

35)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1호, 2005, 221-222쪽.

36) 김주관, 위의 글, 227쪽.

〈표 1〉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디지털아카이브 기술항목 변화

	2008		2012		
	항목	적용기록	영역	항목	적용기록
1	제목	구술, 사진, 동영상, 문서	기술영역	제목	구술, 사진, 동영상, 문서
2	제작자	상동		주제	상동
3	주제	상동		주요내용	상동
4	주요내용	상동		자료배경	상동
5	제작기관	상동	기술통제영역	제작년월일	상동
6	제보자	상동		제작기관	상동
7	기록형태	구술(MP3), 사진(JPG), 동영상(WMV), 문서(hwp, pdf)		제보자	상동
8	제작년월일	상동		제작자	상동
9	자료형식	상동		게시자	상동
10	자료번호	상동		기록언어	상동
11	자료출처	상동	물리적영역	형태	상동
12	기록언어	상동		자료형식	상동
13	자료배경	상동		보관함NO	상동
14	연관자료	상동	지원영역	과제명	상동
15	저작권	상동		과제기간	상동
16	전체문서내용	상동		과제기관	상동
17	내용화일	상동	식별영역	자료번호	상동
18	RFID	상동		RFID	상동
19	GPS위치정보	상동	위치영역	보관장소/ GPS	상동
20				수집장소/ GPS	상동
21	-	-	연관자료영역	Relationship	상동
22			열람 및 이용영역	저작권	상동
23				자료출처	상동

2008년도 기술항목과 2012년 기술항목을 비교해봤을 때 달라진 점은 내용화일 항목이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위치정보(GPS)가 더 세분화되어 보관장소와 수집장소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연관자료 항목은 Relationship으로 대체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에서는 메타데이터의 형식으로 더블린코어를 채택하고 있다. 더블린코어의 기존의 메타데이터 형식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시된 표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데이터요소의 선정과 기술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 자원의 본질적인 특성을 기술요소로 설정(고유성) ▲ 규정된 필수데이터 요소 이외에 부차적인 내용이나 특성을 기술요소로 사용(확장성) ▲ 응용분야나 표현 기법을 규정하지 않음(독립성), ▲ 각 요소의 소록여부를 강제하지 않음(선택성) ▲ 모든 기술요소는 반복 할 수 있음(반복성) ▲ 한정어를 사용하여 세부사항을 조정(수정가능성). 생활사연구단에서 더블린코어를 채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장점들, 즉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표준을 통한 단순성, 의미론적 상호운용성, 확정성 등을 가지고 있기에 생활사 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sup>37)</sup>

세 번째로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를 언급하려고 한다. 산복도로 아카이브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산복도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지역, 시기, 대상에 대한 수집 범위를 설정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 사업구역인 초량·영주지역의 동구·중구를 주요 수집 대상 범위로 정했고 시기적으로는 1964년 망양로 개통 이후의 시기를 중점 대상 시기로 정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안과 기술하는 방법으로서 ISAD(G)와 더블린코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수집자료에 대해서는 ISAD(G), 그리고 장소정보 및 개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블린

---

37) 김주관,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2006, 469-470쪽.

코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산복도로 아카이브에서 적용한 기술과 기술표준인 ISAD(G)와 더블린코어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 <표 2><sup>38)</sup>와 같다.

<표 2> ISAD(G)와 더블린 코어를 적용한 산복도로 아카이브 기술

	수집자료		장소정보		개인 이야기	
	ISAD(G)	산복도로	더블린 코어	산복도로	더블린 코어	산복도로
1	참조코드	관련번호	표제	대상명	표제	대상명
2	표제	제목	생산자	촬영자	생산자	면담자
3	일자	생산일시	주제	유형	주제	주제, 접촉유형
4	기술계층	—	요약정보	내용(이야기)	요약정보	—
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형태	발행처	—	발행처	—
6	생산지명	생산자	기여자	—	기여자	—
7	행정연혁	—	날짜	촬영날짜	날짜	인터뷰일자
8	기록물이력	수집이력	자료유형	자료유형	자료유형	—
9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입수처	파일유형	파일형식	파일유형	—
10	범위와 내용	내용	식별자	관리번호	식별자	관리번호
11	평가/폐기/처리 일정 정보	—	정보원	—	정보원	—
12	추가이관	—	언어	—	언어	—
13	정리체계	—	관련자원	관련자료	관련자원	관련자료
14	열람조건	열람조건	내용범위	—	내용범위	—
15	재생산조건	이용조건	이용조건	이용조건	이용조건	이용조건
16	언어와 문자	언어	-	지역	-	인터뷰회차
17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	-	촬영위치 (추가)	-	세부유형 (추가)
18	검색도구	—	-	대상위치 (추가)	-	인터뷰결과 (추가)
19	원본의 위치	원본위치	-	관련자료 (추가)	-	첨부파일 (추가)

38) 부산시, 『산복도로생활자료관아카이브 기본계획수립보고서』, 미발표, 1-12쪽.



20	사본의 위치	—	-	첨부파일 (추가)	-	-
21	관련기술단위	—	-	-	-	-
22	출판주기	—	-	-	-	-
23	주기	기타	-	-	-	-
24	아키비스트 주기	등록자	-	-	-	-
25	규칙과 협약	—	-	-	-	-
26	기술일자	등록일자	-	-	-	-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ISAD(G)와 더블링크어를 이용하여 산복도로 아카이브에 필요한 적용항목들을 설정하고, 나아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추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수집자료 자체에 대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ISAD(G)를 사용하고, 한편으로 장소 정보와 주민들의 산복도로와 관련된 삶을 개인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더블링크어를 이용해 메타데이터를 추출했다.

## 2) 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 사례

광의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에 대해 우선 살펴볼 기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1년 6월 28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와 연구,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와 연구, 민주화운동의 기념과 계승을 위한 사업과 행사,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사료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료관은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는 오픈

아카이브(Open Archives)<sup>39)</sup>로 재편되어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웹에서 서비스 중이다. 아카이브는 크게 민주화운동컬렉션, 사진 아카이브즈,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구술 아카이브즈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컬렉션, 사진 아카이브즈, 구술 아카이브즈의 기술항목을 알아보았고, 각각의 항목별로 적용된 아카이브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술 항목

	항목	민주화운동컬렉션	사진 아카이브즈	구술 아카이브즈
1	제목	○	○	X
2	생산자	○	○	X
3	생산일자	○	○	X
4	형태	○	○	X
5	구분	○	○	X
6	분량	○	○	X
7	등록번호	○	○	X
8	기증자	○	○	X
9	설명	○	○	X
10	저작권	○	○	X
11	이용안내	○	○	X
12	계층	○	○	X
13	규모와 매체	○	○	X
14	과제명	○	○	X
15	구술자	○	○	X
16	면담자	○	○	X
17	물리적 크기 및 범위	○	○	X
18	구술자 이력	X	X	○
19	구술내용	X	X	○
20	이용주기	X	X	○
21	업무주기	X	X	○

39) <<http://archives.kdemo.or.kr/>>, [cited 2012.08.22].

위의 표와 같이 매체별로 그 특성에 따라 기술항목을 적용시켰고, 특히 구술기록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기술항목을 정해 놓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업무소개에 따르면, 등록 및 기술에 관한 업무는 '민주화운동 사료 기술표준'에 의거해서 기술하게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사료 기술표준은 기술표준인 ISAD(G)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사료의 특성에 맞게 적용시킨 것이다. 그 항목은 사료관리시스템의 항목으로 그대로 기술항목으로 등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변경시킨 사료관리시스템 기술항목은 배경영역에서 '접촉정보', '수집개요'를 추가시켰고, 열람과 이용조건 영역에서 '주제어', '사료매체', '색상', '크기', '재질', '분할기준', '재생시간'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아예 보존영역을 새롭게 설정하여 '보존상태', '보수정보', '소장위치', '구상자번호', '업무주기' 항목을 생성했다.

두 번째로 LGBT 커뮤니티 아카이브에 대해 검토해 보려고 한다. LGBT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sup>40)</sup> 1983년 12월 뉴욕시위원회는 13번가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The Lesbian & Gay Community Services Center)에게 판매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첫 해에 60여 개의 그룹이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만났고, 오늘날 300여 개의 그룹이 센터로부터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것을 시작으로 센터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1969년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 이후 LGBT 커뮤니티는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해왔다. LGBT 커뮤니티는 실천적 정신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법률적 단체와 문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

40) LGBT 커뮤니티 역사에 대해서는 <<http://www.gaycenter.org/about/history>> 참조. [cited 2012.08.27].

LGBT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정기적으로 전시, 출판물과 학술적 활동 등을 통해 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 자원봉사자였던 아키비스트 Rich Wandel이 LGBT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각각의 컬렉션은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단체에서 기증된 다양한 매체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커뮤니티 센터의 역사 아카이브는 컬렉션의 규모로 봤을 때 게이와 레즈비언 아카이브 중 가장 앞서있다. 이 컬렉션을 통해서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구원들, 학술 위원들, 역사가들, 영화제작자들에 의해 많은 정보가 다시 재생산되었다.

LGBT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컬렉션은 103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STEVE ZABEL PHOTOGRAPHS' 컬렉션을 선택했을 때 <그림 3>과 같이 기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LGBT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 사례

### 13. STEVE ZABEL PHOTOGRAPHS

**Archive Number:** 13  
**Date:** 1981 - 1986 (Bulk 1983 - 1986)  
**Size:** 1,187 color 35mm slides

**Provenance**

All the photographs in the collection were taken by Steve Zabel. On his death in 1989 the slides were passed to his friend Jon Graham who donated them to the Center Archive in 1991.

**Scope and Content**

The collection is a group of 1,187 color slides. The vast majority are of the Gay Pride March in New York City. The photos go as far back as 1981 but the majority are from 1983 to 1986. Mr. Zabel seems at times to have stood in one spot on the parade route and photographed each group as it passed by. This is a good place to look for photographs of specific Lesbian and Gay organizations.



**Bio**

Mr. Zabel was an amateur photographer that pursued his photography with all the dedication of a professional. Starting with his teenage years, he spent most of his free time photographing New York's transit and bus systems. He also pursued his hobby by choosing a career with the New York City Transit Authority, where he held a variety of operating titles. He was active in the New York Division Electric Railroaders Association and also served on its board. This organizational experience had laid the groundwork for his participation in ACT-UP.

Steve's good friend and fellow railfan, Dave Jaspan, passed away after suffering from the AIDS syndrome. Dave's death propelled Steve into AIDS activism. His growing commitment to fighting indifference to AIDS eventually consumed all of his free time. Steve participated in ACT-UP zaps and civil disobedience events when he was not documenting the same on videotape as an electronic journalist for the Gay Broadcasting System show Cut In the Eighties. With his own funds he purchased hi-quality video equipment to better his product for GBS. His work is highlighted by coverage of protests at the Atlanta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in 1988. Steve was murdered in his Murray Hill apartment in a robbery on March 1, 1989 at the age of 40.

Biography written by Jon Graham

**Folder List**

1. New York City Gay Pride Festvities, June 28, 1981, Miscellaneous Photos, 1981 & 1982 (sheets 1-7, 117 slides)
2. New York City Gay Pride Festvities, June 1983, Miscellaneous Photos, 1983 (sheets 8-24, 365 slides)
3. New York City Gay Pride Festvities, June 1984, (sheets 25-35, 203 slides)
4. New York City Gay Pride Festvities, June 1985, (sheets 36-43, 154 slides)
5. New York City Gay Pride Festvities, June 1986, (sheets 44-61, 348 slides)



기술항목은 크게 식별영역과 출처, 범위와 내용, 이력, 폴더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식별영역은 다시 식별코드(archives number), 날짜, 크기로 나뉜다. 출처항목은 해당 컬렉션에 속한 기록이 어떤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기증되었는지 밝혀주고 있다. 범위와 내용 항목은 기록의 크기와 더불어 기록과 관련된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력항목은 출처에서 언급된 생산자에 대해서 설명한다. 폴더리스트는 컬렉션에 포함된 폴더의 구성을 알려준다. 이러한 기술항목은 기록 매체와 상관없이 모든 컬렉션 기술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항목이 상당히 축약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술항목을 위와 같이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거나 수집정책이나 기술작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로 JARDA(Japanese American Relocation Digital Archives)은 세계대전 당시의 포로수용소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경험을 기록화한 캘리포니아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 CDL)의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AC) 속의 디지털 테마 컬렉션이다. OAC 회원인 8명의 큐레이터는 사진, 문서, 매뉴스크립트, 그림, 편지, 구술 등을 포함한 원자료를 선별했다. 10,000여 개가 넘는 디지털 이미지는 구술 및 20,000 페이지의 전자사본으로 만들어졌다.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은 OAC의 EAD와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 시스템의 온라인 검색도구인 MELVYL의 USMARC 카탈로그 기록을 통해 제공된다. 전자문서는 TEI 표준(the Text Encoding Initiative standard)에 따라 수정되었다.<sup>41)</sup>

JARDA는 일본계 미국인의 포로와 관련된 원자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의 일기, 편지, 사진, 그림과 포로수용소의 신문, 최종 보고서, 사진, 수용소의 일상 행정서류 등을 포함한 전쟁당시 미국기관의 이전(Relocation) 자료, 마지막으로 수용소에서 행정상으로 일하고 억류되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개인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다.

---

41) <<http://bancroft.berkeley.edu/collections/jarda.html>>, [cited 2012.09.01].

## 〈그림 4〉 JARDA 기술



University of California

browse a-z · about · contact us

Back

**Title:**  
Nisei festival queen dines i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Creator/Contributor:**  
Daily News (Los Angeles, Calif. : firm), Publisher

**Date:**  
1940

**Subject:**  
Japanese American neighborhoods—California—Los Angeles  
Ethnic festivals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Kobayashi, Shizue

**Note:**  
Nisei festival queen Shizue Kobayashi enjoys a meal during the celebration in Little Tokyo, Los Angeles.  
"Nisei" are the second-generation Japanese Americans who founded the annual festival in 1934 to attract business to the Little Tokyo area and promote goodwill in Los Angeles.

**Type:**  
news photographs

**Physical Description:**  
1 photograph : b&w negative ; 10 x 12.5 cm

**Identifier:**  
uclams\_1387\_b34\_24037-3

**Copyright Note:**  
Transmission or reproduction of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beyond that allowed by fair use requires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s. Works not in the public domain cannot be commercially exploi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Responsibility for any use rests exclusively with the user.

**Copyright Owner:** UC Regents

**Copyright Contact:**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 U.C. Los Angeles

**Related Item:**  
**Metacollection:** California Cultures

**Collection:**  
Los Angeles Daily News negatives collection

**Contributing Institution:**  
UCLA Special Collections, Young (Charles E.) Research Library

printable version

[image only](#) [image with details](#)

More like this



Nisei festival queens pose with flowers i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Mayor Fletcher Bowron at a Nisei festival i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Nisei Week Festival Quee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Print shop i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on December 7, 1941



Street scene in Little Tokyo, Los Angeles (Calif.) on December 7, 1941

Home | Themed Collections | California Cultures | JARDA | Terms of Use | Privacy Policy | Site Map  
 Calisphere is a service of the UC Libraries, powered by the California Digital Library.  
 Copyright © 2011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JARDA의 웹페이지는 People, Places, Daily Life, Personal Experiences로 구분된다. People의 경우 검색(Browse)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분류 계층은 People(children, families, orphans, women), Workers(administration, agriculture, medical, military)로 되어 있다. 또한 수용되었던 사진작가별, 예술가별로 분류되어 있다. JARDA는 컬렉션과 캘리포니아주 학습표준(california content standards)과 연동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은 JARDA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항목은 제목, 생산자 및 기증자, 날짜, 주제, 주기, 형태, 물리적 기술, 식별코드, 저작권, 관련 아이템/컬렉션/참여기관이 있다. 주기에는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다. 즉 주기는 기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인물이 존재할 경우 역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당 기록에 대한 기술 이외에 관련 기록을 연동시켜줄 수도 있다. JARDA의 기술은 항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살펴본 OAC와 마찬가지로 MARC와 EAD 표준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분석종합

앞서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거기에 포함되는 아카이브 기술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아카이브 설립 목적 및 해당 커뮤니티의 기록을 기술로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의 관점은 앞서 언급했던 패러다임 전환 이후의 기술의 모습들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와 관련지어서 진행하려고 한다.

우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기술이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권력누수 공간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술은 이제 참여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보았던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 - 인터페이스

아카이브	협력 방식	협력 내용
OAC	다기관협력(커뮤니티 구성원, 이용자 참여 없음. 다만 컬렉션 마다 상이할 수 있음)	DSC 사업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이 협력할 수 있게 됨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을 UC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통합적 관리함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없음 (통학적 연구를 진행)	여러 학문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음(인류학, 역사학, 문학 등)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회가 주체
산복도로 아카이브	다기관협력	주민 중심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지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원-기관 협력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차원
LGBT	구성원-기관 협력	개인이나 단체에서 관련된 기록을 기증하는 차원
JARDA	다기관협력	캘리포니아 지역의 여러 기관이 참여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은 패러다임 전환 이후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여기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이 기록화 과정 및 기술작업의 협력방식에서 기록학영역과 시민영역의 접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협력의 방식은 크게 기록학계-커뮤니티 구성원, 이용자-커뮤니티 구성원, 기록학계-이용자, 커뮤니티-기록학계-이용자 등으로 유형을 분류될 수 있다. 6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살펴보았을 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협력한 경우는 LGBT 아카이브였다. 이 아카이브는 성적 소수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한편으로 6개의 아카이브 대부분 다기관 협력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관련 지역의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 NGO 단체 등이 기록을 기증하는 형태로 협력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일환 때문이지 확실하지 않지만, 패러다임 전환 이후 협력의 사례는 많아졌다. 하지만 그 협력의 방식은 다기관협력 일 뿐이었으며, 시민영역 즉 커뮤니티 구성원들 및 이용자들이 협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6개의 아카이브가 각각 다른 형식으로 협력을 했지만 그것을 기술에 반영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권력누수의 공간으로서 기술에 따라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 - 권력누수

아카이브	아키비스트의 설명책임성	기록화 작업 공개 여부
OAC	없음(기술항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프로젝트 정보에서 해당 컬렉션과 관련된 인물들을 기술)	없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없음	없음
산복도로 아카이브	없음	없음(수집과정 및 질문지 작성 등의 내용이 존재하나, 기술에는 나타나지 않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없음(기증기관만을 언급)	수집 및 이관된 기록이 기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프로세스를 공개함
LGBT	없음(기증기관만을 언급)	없음
JARDA	없음(기증기관만을 언급)	없음

위의 분석항목 중 아키비스트의 설명책임성이란 기술 작성 시 아키비스트의 관점이 투영되어 ‘객관적’이며, ‘투명한’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경향 및 가치관 등을 비롯한 아키비스트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화 작업 공개는 기록화 과정 및 기술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와 규칙 등을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패러다임 전환 이후 아키비스트의 권력누수 공간으로서 기술의 역할을 알아 볼 수 있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을 통해서 6개의 아카이브를 분석하면, 모든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실행되고 있지만 기술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키비스트 스스로에 대한 정보는 6개의 커뮤니티 기술에서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항목으로 표현된 것은 단순한 아키비스트의 이름과 직위 혹은 기증자에 대한 단순한 정보일 뿐, 그들이 어떠한 아키비스트에 대한 질적 정보는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록화 작업 공개도 기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아카이브에서 수집이나 이관시 리드파일을 작성하거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기록화 작업을 공개할 때 아키비스트의 작업이 투명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역으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료관에서 수집프로세스와 등록시 항목설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술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참여의 공간과 연결 지어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기술 - 참여공간

	참여 주제		참여 형식	
	커뮤니티 구성원	이용자	기록화 과정	기술작업 이후
OA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있음(구술)	없음	없음(구술의 경우)	없음
산복도로 아카이브	있음(개인 이야기)	없음(현재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음)	없음(개인 이야기 범주에서 인터뷰 진행)	없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있음(구술) - 컬렉션을 구성하는데 적극적 기증과 협력(다만 수집정책에 의한 것도 상당수)	있음	없음(구술의 경우)	컬렉션 기술에 대한 코멘트 작성 가능
LGBT	있음 -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기록을 적극적으로 기증	없음	커뮤니티 구성원인 아카이비스트가 아카이브를 구성	없음
JARDA	있음(구술) -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관련된 기록이 존재하지만, 구성원들이 참여로 구성된 것은 아님	없음	없음(OAC에 참여했던 큐레이터가 기록을 선별)	없음

인터페이스는 시민영역의 협력 유무를 파악한 것이었다면, 참여공간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화 과정 및 기술작업에서 아키비스트 이외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였다. 참여의 주체는 크게 커뮤니티 구성원과 이용자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기록화 과정 및 기술작업에 참여한 방식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참여형식은 기록화 과정과 기술작업 이후로 구분하였다. 기록화 과정 중에서 참여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집 및 평가, 나아가 기술작업에 협력한 것을 의미한다. 기술작업 이후에 참여는 기술에 관한 의견참사이나 오류수정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기록화작업 및 기술에 참여한 것은 제한적으로 대부분 구술채록과정과 산복도로아카이브 경우 인터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기술을 직접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집 및 기술 프로세스 과정에 참여한 아카이브는 없었다. 이용자 참여 역시 대부분의 아카이브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경우 북금곰원정대 컬렉션, 시민 아키비스트 대쉬보드, 위키피디아와 같이 의견을 참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 및 지향에 따라 커뮤니티 기술의 위치에 따라서 기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커뮤니티 아카이브 목적 및 지향에 따른 기술 분석

아카이브	주체성	기억화 작업	상징화 작업
OAC	없음	있음(기증의 차원, 다시 커뮤니티가 이용 가능할 수 있음)	·재맥락화 : 없음 ·재해석화 : 없음
20세기민중 생활사연구단	없음(구술작업의 형태로 서만 참여)	있음(기증의 차원, 다시 커뮤니티가 이용 가능할 수 있음)	·재맥락화 : 지역별 재분류만 진행 ·재해석화 : 없음

산복도로 아카이브	없음(커뮤니티 구성원들은 인터뷰 방식으로만 참여)	있음(인터뷰 방식의 기록이 존재함. 다만 그것이 다시 커뮤니티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이용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	·재맥락화 : 없음 ·재해석화 : 없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없음(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기록을 기증하거나, 수집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민주화운동의 당사자들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임)	있음(기증의 차원, 다시 커뮤니티가 이용 가능할 수 있지만 불확실)	·재맥락화 : 사진 아카이브 경우에만 테마별 맥락 기술이 존재 ·재해석화 : 기술에 대한 코멘트형식으로 재맥락 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LGBT	있음(기록관리주체, 기술주체)	있음(기증의 차원, 다시 커뮤니티가 이용 가능할 수 있지만 불확실)	·재맥락화 : 없음 ·재해석화 : 없음
JARDA	없음(캘리포니아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당사자인 일본계미국인의 참여도는 미흡)	다기관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복잡	·재맥락화 : 테마별로 분류된 뒤 맥락 기술이 존재 ·재해석화 : 없음

〈그림 1〉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위치를 언급했었다. 그와 연동해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와 기술을 분석하는 요소로서 주체성과 기억화 작업, 상징화 작업으로 구분하였다. 주체성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기록관리 적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예를 들어 기록생산주체, 기록관리주체, 기술주체 등의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

기억화작업은 해당 컬렉션 및 기록을 통해서 기억화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접근성, 커뮤니티 내의 공유, 대항기억과 관련된다. 즉 기록이 다시 커뮤니티에게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며, 따라서 그러한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록이 커뮤니티의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화된 기록이 커뮤니티 내에서 접근, 공유의 정도에 결정된다. 나아가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타자’

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식기록에 반한 대항기억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상징화는 상징화되는 행위와 그것을 이해하는 행위로 구분되는데<sup>42)</sup>, 기록에 대한 상징화 작업은 기록 계층 간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다. 계층은 물리적 구조라기보다 지적 및 논리적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상징화 되어 나타나는 것이 달라진다. 한편으로 상징화는 해석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기록의 내용이 불변하다고 가정해도 (기록의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이 변하면 똑같은 기록에 대한 해석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 번 작성된 기술 이후에 맥락이 변화하였을 때 이용자 등이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유무에 따라 기왕의 해석과 상이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상징화의 세부항목을 정리하자면, 상징화 작업은 재맥락화와 재해석화로 구분할 수 있다. 재맥락화는 방금 언급한 기록 계층 간의 관계를 얼마나 유동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재해석화는 기술 작성 이후 아키비스트나 이용자가 기술에 관한 재해석을 가능케 하는 기능 및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체성에 관한 6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분석했을 때 LGBT 아카이브를 제외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주체성은 보이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구술작업 및 개인 이야기의 형태로 참여했거나, 혹은 관련 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증하는 형태로 기여할 뿐 기록관리주체와 기술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억화와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접근 및 공유의 형식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으나, 그것이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이용자 간의 차이를 낳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 보다 효율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2) 최광호, 「기록의 특성에 관한 연구-행위 반영성·커뮤니케이션적 특성·상징성·시간성」,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3, 30쪽.

다.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록이 커뮤니티 내에서 의미와 역할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상징화 작업 중 재맥락화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JARDA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사료관은 특히 사진아카이브에 대해서만 테마별로 분류한 뒤 기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JARDA의 경우는 생산 맥락 이외에도 모든 컬렉션에 대한 기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경우 수집전략 및 생산맥락(출처)에 따라 그대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던 것과는 상이하다. 재해석화의 경우 사료관의 오픈 아카이브에서 이용자들이 코멘트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아카이브에서는 재해석화를 위한 기능이나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 4.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술 제안

### 1)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우애의 아카이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sup>43)</sup>은 2005년 설립된 단체로서 시설 내의 장애인권에 대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시설 및 신고시설 내의 비인권적 행위를 고발하고 재단해체 및 장애인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바닥의 이러한 움직임을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이라고 하며 2005년 전국시설조사를 시작으로 성암재단시설비리척결운동, 석암재단시설비리척결운동, 서울시 탈시설육구조사,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투쟁, 2011년 도가니대책위 등에 참여하여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발바닥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한국의 사회복지계 내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과 사회구조의 문제로 다가서며 선도적인

43) <<http://www.footact.org/>>, [cited 2012.09.01].

역할을 하고 있다.

발바닥의 활동가들은 단체 내 기록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권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아카이빙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은 한신대학교 기록관리대학원과 협동 하에 이루어졌으며 우애의 아카이브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우애의 아카이브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을 동무 아키비스트라 칭하면서 기록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애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 국면으로 구분된다.

〈표 8〉 우애의 아카이브 작업수행일지

날짜(월.일)	국면	내용
3.5 - 3.26	1국면(발바닥 이해하기)	우애이해하기, 발바닥이해하기
4.2 - 4.30	2국면(컬렉션 구성)	활동가들과 컬렉션 구성 및 확정
5.7 - 5.28	3국면(이관 및 정리)	활동가들의 PC에 있는 전자기록 이관
6.4 - 6.25	4국면(기술서 작성)	동무 아키비스트, 활동가, 탈시설장애인, 후원인들의 기술서 작성
- 7.15	5국면(수정 및 보완)	컬렉션 및 기술서 수정 보완

우애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구성된 컬렉션은 총 10개이며, 기술서는 5개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발바닥의 활동단위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나, 활동가와 동무 아키비스트의 논의를 통해 추가 및 변경하여 설정하였다. 10개의 컬렉션은 시설인권컬렉션, 역사기록컬렉션, 회원기록컬렉션, 연대활동컬렉션, 주력사업컬렉션, 탈시설컬렉션, 참고자료컬렉션, 교육컬렉션, 시청기록각컬렉션, 구술기록컬렉션으로 구성되었다.

컬렉션 중 8개는 한국인권기록 기술서로 작성되었으며, 시청각기록 컬렉션과 구술컬렉션은 각각 별도의 기술서로 작성되었다. 내러티브 기술서도 작성되었는데 이것은 인류학적 방식으로 접근한 기술서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발바닥활동가 기술서와 동무 아키비스트 기술서이다. 마지막으로 4개의 기술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술서인 중간기술서가 있다.

한국인권기록 기술서는 AIM25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제기술표준 ISAD(G)를 이용하지 않고, AIM25를 기초로 했는데 이는 국제기술표준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AIM25는 특정지역이나 단체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의 주제에 기반을 둔 컬렉션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 RSLP(the Research Support Libraries Programme)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AIM25가 런던과 M25 지역의 기록을 기술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국제기술표준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다만 표준인 ISAD(G),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지침』등을 참고하였다.

〈표 9〉 AIM25를 적용한 한국인권기록 기술 요소와 적용 계층

AIM25 컬렉션기술 요소		적용(변경) 여부	적용계층
1. 식별영역	1.1참조코드	○	컬렉션, 시리즈
	1.2보유장소	○	컬렉션
	1.3제목	○	컬렉션, 시리즈
	1.4날짜	○	컬렉션, 시리즈
	1.5기술계층	○	컬렉션, 시리즈
	1.6규모	○	컬렉션, 시리즈
	1.7생산자이름	○	컬렉션, 시리즈
2. 배경영역	2.1행정연혁	○	컬렉션, 시리즈
	2.2개인이력	○	시리즈
3. 내용영역	3.1범위와 내용/초록	○	컬렉션, 시리즈
4. 접근과 이용 영역	4.1언어	-	없음
	4.2필체	-	없음
	4.3분류체계	○	컬렉션, 시리즈
	4.4사본 및 재생산조건	○ (기록연대)	시리즈
	4.5검색도구	○	컬렉션



5. 기술정보	5.1기록물이력	○	시리즈
	5.2수집의 직접적 출처	○	시리즈
6. 관련자료영역	6.1관련자료	○	시리즈
7. 기술주기	7.1출처에 대한 아키비스트 주기	○	컬렉션, 시리즈
	7.2규칙	○	컬렉션
	7.3기술날짜	○	컬렉션, 시리즈
		기술자	컬렉션
8. 인덱스영역	8.1주제	○	시리즈
	8.2개인이름	○	시리즈
	8.3조직이름	○	시리즈
	8.4장소명	○	시리즈
		파일리스트	시리즈

한국인권기록 기술서는 AIM25의 대부분 요소를 적용하고 있다. 몇 가지 항목은 발바닥기록을 염두에 두어 볼 때 필요하지 않다고 예상되어 누락시키거나, 항목명을 고쳤다.

내러티브 기술서는 인류학적 기술(anthropological description)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류학적 기술은 클리포드 기어즈가 『문화의 해석』에서 주장했던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 이하 두꺼운 기술)”<sup>44)</sup>이

44) 클리포드 기어즈, 문옥표 역, 『문화의 해석』, 까치, 2009, 11-47쪽; 『문화의 해석』에서는 “thick description”을 중층 기술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각각 조한옥(『문화를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은 ‘두꺼운 묘사’라고 번역했고, 김기봉(『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은 ‘치밀한 묘사’라고 번역했고, 곽차섭(『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은 ‘촘촘한 묘사’라고 번역했다. 이 중에서 조한옥의 논의가 설득력이 있다. 그에 따르면, “중층 기술은 두꺼운 묘사와 비슷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꺼운 묘사는 인류학적 기술을 할 때 두껍게 묘사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또는 더 넓게 인문학적 서술은 원래 두껍게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도 포함한다. 즉 발리의 원주민들의 닭싸움에 대해 묘사할 때 그것은 이미 닭싸움이라는 껍데기(기표) 속에 다른 여러 가지의 내용(의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층의 두꺼운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의 작업을

다. 실증과학보다는 문화해석, 얇은 기술(현상기술)보다는 두꺼운 기술(중층 기술)에 대한 그의 논의는 기록학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물론 기술 항목 중에서 맥락정보(배경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두꺼운 기술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기술에 경우 ISAD(G)에서 배경영역과 내용 및 구조영역이 맥락정보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영역만으로는 기록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기어츠가 문화를 ‘의미의 그물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기록 역시 축소된 ‘의미의 그물망’이라고 본다면 기술서는 단 하나일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기어츠의 인류학적 기술 즉 두꺼운 기술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기록학 영역인 기술과의 접점이 내러티브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기술은 활동가가 작성한 기술서와 동무 아키비스트가 작성한 기술서에 적용되었다. 8명의 활동가와 8명의 동무 아키비스트 전원이 우애의 아카이브를 진행하면서 그들이 각각 가졌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였다. 기어츠는 타자로서 발리라는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커뮤니티 구성원이 되는 과정, 그들과 함께 경험한 내용을 기술했다. 마찬가지로 동무 아키비스트는 자신들과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가졌던 ‘발바닥’이라는 커뮤니티 속으로 들어가 경험하고 공유했던 내러티브를 기술하였다. 즉 동무 아키비스트는 발바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했고 무엇을 공유했는지, 발바닥을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발바닥 기록을 어떻게 기술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활동가 기술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각 컬렉션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기술하였다. 탈시설-자립생활 운동의 당사자이자 경험자로서, 그리고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로서 그들의 내러

---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두꺼운 묘사란 원래 현상의 표면만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얇은 묘사와 대비되는 인문학에서의 기술을 말한다.” 이와 같은 조한욱의 논의를 받아드려 중층기술을 두꺼운 기술이란 번역어로 이용하고자 한다.

티브를 서술했다.

마지막으로 중간기술서는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안내서이다. 중간기술서는 기록학 차원에서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장부터 발바닥에서 진행된 기록정리 및 기술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술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더불어 기술서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기술서라기보다 기술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 표준처럼 항목요소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라기보다 기술작업에 대한 근거와 진행과정, 그리고 산출물 등을 엮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발바닥의 기술정리사업은 ‘우애’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바닥 기록을 정리 및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력을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담론형성과 더불어 각각의 기술서에 대한 의미를 명명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했다.

이러한 중간기술은 슈마허의 논의로부터 모티브를 얻었다. 슈마허의 논의를 빌려와 발바닥의 기록 즉 우애의 아카이브도 역시 국가단위의 아카이브의 거대기술이라 할 수 있는 기술표준인 아닌 발바닥이란 커뮤니티에 적절한 기술을 지향하였고, 이에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을 중층적인 의미로서 중간기술(Intermediate Descrip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에서 운영되는 국가기록원이나 공공영역의 아카이브와 개인 단위의 아카이브 사이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위한 기술이 바로 중간기술이다.

또한 중간기술은 이용자-기록-기술자(생산자), 내러티브(기술자)-기록-내러티브(생산자)의 매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기왕의 기술이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유관기관과의 상호운용을 위해 이용자-기록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술자와 기술에 대한 중립성 담론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언제나 중립지대로서 기술은 성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우애의 아카이브 중간기술에서는

기술과 기술서가 이용자에게 기록열람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의 주관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용자와 기록 그리고 기술자(생산자)를 이어주는 매개역할 혹은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공개한다.

〈표 10〉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과 탈표준

기술서	한국인권기록 기술규칙(AIM25)	개인이력 템플릿	내러티브 기술서 (인류학적 기술)
			활동가 기술 동무아키비스트 기술
적용단위	모든 컬렉션	담당 컬렉션	담당 컬렉션
탈표준과의 관계	표준 ←—————▶ 탈표준		

위의 표는 앞서 말한 기술들과 탈표준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AIM25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권기록기술서와 그것을 변형한 구술기록기술서, 시청각기록기술서가 기술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기술은 기술표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탈’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러티브기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인류학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왕의 기록학계에서 말하는 기술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 내러티브기술서는 활동가 기술과 동무 아키비스트 기술로 구분된다.

중간기술서는 위의 여러 가지 기술서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서이며, 중간기술론은 슈마허의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에 모티브를 얻은 중간기술(Intermediate Description)이자, 내러티브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매개 및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나아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 2) 한국인권기록 기술 제안

앞서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이 인터페이스, 권력누수, 참여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지향과 목적에 적합하게 기술이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우애의 아카이브 작업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인권기록에 대한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풍중심의 전통적인 기술이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3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것은 인터페이스,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권력누수, 참여공간이다.

첫 번째로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기술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에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공간은 기록학이란 지적공간과 커뮤니티라는 실천적 공간이다. 한편으로 기록학 방법론을 가진 전문가와 기록을 생산한 생산자로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경계이기도 하다. 결국 인터페이스로서 기술은 이질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내러티브가 상호교차 하는 공간인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재현에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측면 가운데 상당히 부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학 작업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최소한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기록학 작업 혹은 아카이빙 '이질적인 존재들이 모여 함께 풀무질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발바닥의 우애의 아카이브는 이것을 진행했다. 우애의 아카이브라는 명칭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발바닥 안에서 아카이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우애와 협력을 모티브로 삼았다. 우애의 아카이브를 작업하면서 처음으로 논의했던 것이 발바닥에서 만들어진 아카이브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우애'라는 것이며, 그 어원과 같이 '협력'을 중요시 했다. 이 때문에 동무 아키비스트는 발

바닥인 가진 인권‘감수성’을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의 내러티브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1국면이었다.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동무 아키비스트와 함께 협력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컬렉션 구성 및 기술 작업을 진행했다. 기왕의 기록학 작업 특히 기술작성이 아키비스트에 의해 암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발바닥의 경우 ‘우애’와 ‘상호협력’이란 지향점에 따라 발바닥 활동가들이 직접 기술작업을 같이 수행했고 컬렉션 구성 시 함께 논의하였다.

이렇듯 발바닥에서 진행한 우애의 아카이브는 동무 아키비스트와 활동가가 협력을 통해 작업을 진행했다. 그 협력의 결과로 컬렉션 구성과 기술서 특히 내러티브 기술에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애의 아카이브에 참여했던 모든 활동가들이 발바닥 기록과 우애의 아카이브 작업 과정에 대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드러내도록 도와주었고 그것은 기술에 반영되었다. 활동가들이 작성한 기술은 내러티브 기술서로서 일종의 인류학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기술의 특정한 항목으로 활동가들이 참여했다기보다 기술서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였다.

결국 우애의 아카이브는 여타 다른 기록 정리 및 기술사업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정리 및 기술전략보다 앞서 담론형성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서 기록을 수집 및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즉 수집할 대상을 확정하고 그리고 컬렉션을 구성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반면 우애의 아카이브에서는 ‘우애’와 ‘협력’이라는 담론형성과정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커뮤니티와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그들을 기록화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아카이브의 비전 및 목적을 설정한 뒤 기록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우애의 아카이브에서 기술이 활동가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인터페이

스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것은 탈시설 장애인의 내러티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들이 비록 발바닥의 기록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았지만, 발바닥이 주장하고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담론의 주요 참여자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기록화 작업 혹은 기술 작업에 동참했어야 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적 제약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컬렉션에서 탈시설 장애인의 구술인터뷰 내용을 포함시켰고, 탈시설컬렉션의 증언집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내러티브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 발바닥 활동가 중 한 명이 탈시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의 내러티브 기술서를 통해서 탈시설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가진 권력에 대한 권력누수의 공간이 된다. 패러다임 전환 이전에 아키비스트가 수동적인 증거의 보관자로서 역할을 가졌다면, 패러다임 이후에 아키비스트는 기록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의 생성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거 아키비스트는 증거의 보관자로서 기록을 보존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에 따라 보관자로서의 아키비스트는 아키비스트가 속해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컨텍스트에 의해서 구성되고 구조화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동시에 구조화된 컨텍스트를 끈고히 하기위해 그들의 담론에 포함되지 않은 '무엇'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배제시켜왔던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해 아키비스트는 지배담론, 국가, 공식기억을 위한 기록들을 보관하였던 것이었고 한편으로 그것은 편향된 담론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기록화 작업 중 특히 기술에 대해 기왕의 기록학 연구자들은 과거(의 기록)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거울'로 인식했다. 이후 중립자 혹은 불편부당한 역할로서의 아키비스트에 대해 비판을 받으면서 기술은 아키비스트의 주관성과 가치관이 투영되는 '반영물'로 바라보았다. 근래에는 아키비스트의 인식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투영된 가치가 '왜곡되어 투영되는 굴절상'으로 인식하기에 이른다. 이

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아키비스트는 그들의 가치를 숨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술에 투영된 아키비스트의 가치 즉 ‘흔적’을 공개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발바닥에서 진행한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왕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과 다르다. 특히 기술이 권력누수의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아키비스트의 설명책임성과 관련해 기술작업을 수행했던 동무 아키비스트에 대한 개인이력템플릿이 존재한다. 이 템플릿은 한국인권기록기술서, 구술기록기술서, 시청각기록기술서를 작성한 동무 아키비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력템플릿에서 동무 아키비스트의 기본적인 정보와 더불어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게 한다. 동무 아키비스트의 템플릿이 커뮤니티와의 외부자로서 그들의 가치관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발바닥 활동가들의 템플릿은 그동안 발바닥에서 맡아 온 업무와 탈시설-자립생활을 주장하고 있는 발바닥이란 단체에 들어 온 계기 등을 서술하도록 했다. 이렇게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술작업에 참여 한 모든 참여자들의 이력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 기록화 작업에 대한 공개여부와 관련해서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록화 작업의 진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졌다. 우선 우애의 아카이브에서 시행한 방법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협력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우애의 아카이브 방법론’에 수록했다. 타자로서 발바닥이란 커뮤니티 속에서 경험과 기억을 공유했던 과정,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아키비스트가 아닌 ‘동무’로서 그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결국 ISAD(G)와 같은 기술표준으로는 발바닥의 기록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발바닥에 적합한 기술을 찾기 위한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안내서인 ‘중간기술서’에서도 기록화 작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즉 중간기술서는 발바닥의 기술서를 기술하기 위해서 한국인권기록 기술규칙, 구술기록 기술서, 시청



각기록 기술서, 내러티브 기술서 등이 필요로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기술서가 표준 및 탈표준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애의 아카이브 진행과정에 관한 ‘기록’은 역사기록 컬렉션 중 역사기록정리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시리즈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했던 회의록을 비롯해 제안서와 보고서 등이 들어가 있다.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이 권력누수로서 작동하고 있지만 한계 역시 존재한다. 기술작업에 참여한 동무 아키비스트와 활동가들이 각각 개인이력템플릿을 작성했지만 항목으로서 표현되었을 뿐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템플릿의 항목을 봤을 때 보다 그들의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론 항목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기술이 “사실과 내러티브, 해석과 관찰을 결합한 스토리텔링”<sup>45)</sup>이라는 점에서 기술작업에 참여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이영남이 수행했던 “내가 쓰는 나의 역사” 프로그램<sup>46)</sup> 같은 것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역사를 자신이 서술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기술을 했던 기술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 본다. 따라서 기술자가 “자신의 역사”를 서술하여 그가 기술한 기술서와 연동시킨다면, 보다 권력누수의 공간으로서 기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술은 참여의 공간이 된다. 그동안 아키비스트는 기술을 비롯한 기록학의 프로세스에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반대해왔다. 즉 아키비스트를 통해 기록의 재현에 방해가 되는 외부로부터의 요소들은 항상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록의 맥락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

---

45) M. Duff and Verne Harris, “Stories and names :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p.276.

4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207/h20120722204514123700.htm>>, [cited 2012.08.31].

기 위해서라도 기록학 프로세스에 맥락적 요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기술은 기록의 의미를 생성하게 한 맥락적 요소들의 참여공간이 된다. 그 요소는 생산자, 아키비스트, 기술 작성자, 이용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발바닥에서 진행된 우애의 아카이브 경우, 앞서 언급한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따라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술작업은 물론 기록정리과정 중 평가와 이관 영역에서도 참여하였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동무 아키비스트가 기록물 이관지침을 통해 기록에 대한 정의와 이관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기록의 평가와 이관은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이었던 발바닥 활동가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발바닥 활동가들은 탈시설-자립생활 담론 안에서 발바닥의 중요한 기록을 스스로 선별했다. 선별된 기록을 시리즈나 파일 단위로 구성하여 우애의 아카이브에 있는 각각의 컬렉션으로 이관했다. 물론 동무 아키비스트도 대상 기관의 기능과 업무, 기록 자체를 분석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 한계를 인정했다. 즉 아키비스트의 분석은 7년 동안 발바닥에서 진행해온 탈시설-자립생활 투쟁 기간 속에서 체득한 활동가의 경험과 기억을 넘어서지 못한다.

발바닥 활동가들이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기록학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반면 이용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다. 시간적·금전적 제약으로 우애의 아카이브의 결과로 웹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웹2.0이라는 시스템 구현의 문제를 벗어나서라도 이용자를 기록화 과정에 참여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작은 도서관 중 하나인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수행된 기술방법론과 같은 것이다.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의 의의는 발바닥 활동가와 동무 아키비스트 모두 각각의 기술서를 작성했다. 반면 느티나무도서관의 기술 방법은 우애의 아카이브보다 협력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즉 아키비스트 이외에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 기술을 공동작업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기술을 함께 작성한 것으로 각각의 기술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기술서를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느티나무 기술방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키비스트-커뮤니티 구성원-이용자가 각각의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 또한 3 주체가 공동작업을 통해 하나의 기술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애의 아카이브가 이용자의 참여 부분이 한계라는 점을 지적할 때 느티나무의 기술방법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11〉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

인터페이스			
협력방식		협력내용	
커뮤니티 구성원-기록학 영역		기술, 컬렉션 구성, 평가 등 기록학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협력	
권력누수			
아키비스트의 설명책임성		기록화 작업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력템플릿(동무 아키비스트)</li> <li>- 이력템플릿(발비다 활동가)</li> <li>- “내가 쓰는 나의 역사”작업 보충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론 공개</li> <li>- 중간기술서 중 정리 및 기술 사업 전반 공개</li> <li>- 역사기록컬렉션-역사기록정리시리즈</li> </ul>	
참여공간			
참여주체		참여형식	
커뮤니티 구성원	이용자	기록화 과정	기술작업 이후
발비다 활동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티나무도서관 기술 방법 보충 필요</li> <li>- 아카이브2.0 기술 시스템 도입 필요</li> </ul>	기술, 평가, 이관 등 프로세스 전반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키비스트, 커뮤니티 구성원, 이용자와의 공동작업을 통한 기술작업 필요</li> <li>- 의견참사 등의 코멘트 기능 추가 필요</li> </ul>

위의 그림은 앞서 주장했던 내용 즉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의 관점에서 발바닥의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을 분석·정리한 것이다.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은 3장에서 분석했던 6개의 커뮤니티 아카이브보다 패러다임 전환 이후 기술의 관점에 따라 보다 적절하게 기술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 한계점들이 보완된다면 보다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 및 지향에 따라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 방법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림 1>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의 인식론적 위치에 따라 주체성, 기억화, 상징화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발바닥의 우애의 아카이브는 위의 3가지 관점(주체성, 기억화, 상징화 차원)에 따라 기술을 적용시켰다. 주체성의 경우 우애의 아카이브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기록생산주체이자, 관리주체, 기술주체로서 활동했다. 탈시설-자립생활 담론을 형성시켰던 발바닥의 기록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던 것이다. 나아가 우애의 아카이브를 진행하면서 동무 아키비스트가 지침을 제공했을 뿐 그들이 스스로 기록을 평가 이관을 진행하였으며, 컬렉션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가들이 참여하면서 기록생산주체, 관리주체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술작업에서도 역시 활동가들이 각각 내러티브 기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기술주체로서도 역할을 했다.

기억화 작업과 관련해서 우애의 아카이브는 컬렉션의 접근과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몇몇 기록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컬렉션 구성은 발바닥이 탈시설 담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시설인권, 탈시설 등의 컬렉션을 갖추고 있다. 또한 발바닥 활동가들은 내러티브 기술서를 통해서 그들의 탈시설 담론

내의 우애의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우애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시설인권백서(가제)’를 만들어 활용할 예정이다.

상징화 작업은 재맥락화와 재해석화로 구분되는데, 우애의 아카이브에서 재맥락화의 경우 내러티브 기술에서 활동가와 동무 아키비스트가 각각 컬렉션에 대한 기술을 진행하였다. 한국인권기록 기술규칙에 따른 기술표준을 통해서는 기록의 생산맥락과 행정적 맥락을 담고 있다면, 내러티브 기술서는 컬렉션에 대한 활동가와 동무 아키비스트의 경험과 기억을 포함하여 재맥락화의 과정을 거쳤다. 재해석화는 패러다임 이후 참여공간으로서 기술과 관련된다. 즉 이용자가 기술작업 이후 기술에 관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기록과 기술에 대한 재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용자는 커뮤니티의 외부인이 될 수 있지만,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포함한다.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이 커뮤니티 아카이브 목적 및 지향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억화 작업에 대한 것으로, 커뮤니티 기록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접근 및 공유의 정도에 관한 논의 이외에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컬렉션 구성상의 문제로서 풀무 공동체의 정리 기술 예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타난다. 풀무 기록 시리즈는 풀무 모내기, 풀무 애완동물, 풀무 한해, 풀무 여성들, 풀무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풀무 공동체는 농업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서 그 특성이 컬렉션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반면 우애의 아카이브의 경우 탈시설-자립생활 담론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로, 보다 그 내용이 기록정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탈시설 컬렉션 및 시설인권 컬렉션 등이 존재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즉, 탈시설 담론에 보다 적합한 컬렉션 구성이 필요하다.

〈표 12〉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인식론적 위치에 따른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

주체성	기억화 작업	상징화 작업
- 생산주체 - 관리주체 - 기술주체	- 모든 기록의 접근 및 공유(다만, 중언집과 같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록은 접근제한) - 탈시설 및 시설인권컬렉션 구성(자립생활과 같은 컬렉션 구성 방안 필요) - 기록정리 및 기술 사업을 통한 자료 생산	- 재맥락화 : 활동가 및 동무아키비스트의 내러티브 기술 - 재해석화 : 아카이브 2.0 시스템 도입 및 느티나무도서관의 기술 방법론 보충 필요

앞서서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목적과 지향에 따른 기술분석을 우애의 아카이브에 적용시켜봤을 때 위의 표처럼 산출된다. 우애의 아카이브 기술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보완하여 우애의 아카이브에서 진행한 방법론을 인권기록에 대해 적용시킨다면 효과적으로 인권기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게 된다면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우애의 아카이브는 수집전략보다 앞서 담론형성과정이 선행되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아카이브 기술은 아키비스트가 ‘외부인’의 입장에서 해당 커뮤니티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기왕의 수집방법은 아키비스트가 수집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중요한 기록을 대상화하고 그것을 수집한다. 이러한 수집을 위한 방법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었다. 하지만 우애의 아카이브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앞서 담론형성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말하는 담론형성과정이란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역사 및 정체성을 아키비스트가 이해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해당 커뮤니티에 적절한 기술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발바닥은 탈시설-자립생활을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단체로 동무 아키비스트는 우선 발바닥에서 주장하는 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

있으며 그것을 어떤 기록학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하였다. 아키비스트는 '외부자'로서 커뮤니티 기록을 수집 및 정리,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내부에서 구성원으로서 해당 커뮤니티 담론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록학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왕의 기술방법론에 대한 탈표준을 진행했다. 이 글에서 커뮤니티 기록을 기술표준으로 재현하려고 할 때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표준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현재 운영 중이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더블린코어, ISAD(G), MARC, EAD 등 기술표준을 이용해서 기록을 기술하고 있었다. 하지만 패러다임 전환과 커뮤니티 아카이브 지향 및 목적이란 관점에서 보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중간기술(론)을 통해서 한국인권기록 기술이란 표준과 더불어 탈표준적인 요소를 가진 내러티브 기술을 동시에 작성하였다. 이 탈표준 기술작업은 발바닥의 경험과 기억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애의 아카이브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여하였다. 기록학계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이전에 전자환경에서 웹2.0과 이에 따른 아카이브2.0에서 이용자 참여의 방법을 주장해왔다. 이것은 기록을 더욱 풍부하게하기 위한 충분조건이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조건이다. 해당 커뮤니티의 생산주체로서, 나아가 그것을 통해 기억을 담지하기 위한 이용주체로서 그들의 참여는 커뮤니티 아카이브 존재의 이유와도 같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와 더불어 아키비스트는 그들과 함께 기록학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아키비스트가 '객관적이며 투명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욱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표 13〉 아카이브 A와 아카이브 B의 차이

구분	아카이브 A	아카이브 B
표면	종이문서, 전자기록	기억, 경험
	대동여지도-Signs Only	동무약도-Narrative Maps
	거대담론, 사회담론	미시담론, 자기담론
	외부전문가-자원봉사자	외부동무전문가-내부아미활동가
표면 아래	Dogmatic Melting Pot	Salad Bowl
	HI-technology	intermediate technology
	국가주도, 행정권력	공동체주도, 자체도양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아래에서, 내부로부터
	경영학	미시인류학
	표준화-일반화	독특화-개별화
심층	효율/경쟁/실적-Efficiency	협력/연대/우애-Solidarity

\* 출처 : 이영남,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 아카이브」, 미발표에서 표 재(再)인용.

이영남은 마을 아카이브가 아카이브 B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심층은 협력·연대·우애라고 주장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와 아키비스트 간의 협력을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발바닥 활동가들이 기록정리 및 기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떠한 커뮤니티 아카이브보다 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가 기록학 프로세스에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커뮤니티 아카이브 혹은 한국인권기록에 대한 기술은 ▲ 수집전략보다 앞선 담론형성과정 ▲ 탈표준 ▲ 커뮤니티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논조를 중심으로 우애의 아카이브가 가진 한계를 수정 및 보완한다면 한국인권기록 나아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기록을 기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맺음말

최근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연구주제로 이용되면서 학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아카이브는 연구 다양화의 한 측면으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커뮤니티 연구는 소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기록학계는 연구 다양화의 한 영역으로서 커뮤니티를 대상화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전히 공공영역을 기록화했던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기록학계가 심도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서 언급했듯 커뮤니티는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존재해왔다. 그들만의 독특한 인식과 방법으로 한국사회 속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예전부터 익숙한 아키비스트의 방법으로 그들을 재단하고 있다. 문제 이로부터 시작한다. 다양성이란 언어가 언제부터인가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아카이브 연구 즉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대담론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영역을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기록학적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기왕의 기록학 혹은 방법론은 지배담론 혹은 엘리트주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제는 그러한 편향성을 떠나 거대담론에 틈새 혹은 경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화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존재한다.

따라서 커뮤니티 아카이브 연구는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동시에 해당 커뮤니티에 보다 유효하고 적합한 인식론과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은 기술표준이 아니라 탈표준일 것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내

러티브와 담론, 이에 따라 생산된 기록은 커뮤니티의 특수성을 삭제시키는 기술표준이 아니라 표준을 넘어선 ‘무엇’이다.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술영역에서 탈표준을 진행시킨 사례라 볼 수 있다. 물론 우애의 아카이브 사례가 ‘객관적’이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그러나 우애의 아카이브는 기술표준보다 커뮤니티 기록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Archival Description in according with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s

Jo, Eun-seong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rchival d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 The academic world of archival science in North America treated the electric record in 1990 and the authenticity of electric record in the beginning of 2000, the flow of Study recognizing the microscopic and the cultural discussion appeared recently. This may be called the paradigm shift of archival science. This may be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informatization and the technology. However, the community archives, the everyday life archives recognizing the microscopic and the cultural discussion, etc. Namely, the everyday life, the village, the community archives are the effort to leave the excluded and the neglected voices from the existing discussion of archival science on record.

However, the currently existing methodology to archive the community archives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se switched recognition is limited. Especially the description of the various standards being used in the public territory is being adapted as it is. The characteristic and the individuality of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archive cannot be reflected through the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We should understand the community archive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shift, need the archival description method capable of expressing this suitably. The post-standard not the existing archival description method has been necessary. This should be carried out together in accordance with the view point of the paradigm shift and the view point of the objective and the direction of community.

Hence, first the archival description and the paradigm shift have been examined theoretically and the archival description of community archive being operated currently has been analyzed. The archival description is to be proposed in accordance with the paradigm shift capable of calling 'the archival description of Korean Human Right' by pointing out the limit of archival description standard through the analysis and further by investigating the archival description of the fraternity archive project.

**key words : paradigm shift, community archives, archival description**